

‘황민화’와 ‘내선일체’로 본 친일문학의 양상*

鄭昌石**

(e-mail: chung51@dongduk.ac.kr)

目次

1. 머리말
 2. 친일문학의 이데올로기 - ‘황민화’와 ‘내선일체’
 3. 친일문학의 양상
 - 1) 친일문학에 이르는 길 - 이석훈
 - 2) 천황주의에의 종교적 귀의 - 이광수
 - 3) 징병제 실시의 감격과 피로써 이루어지는 ‘내선일체’ - 최재서
 - 4) 지원병제 실시와 출세주의 ‘내선일체’ - 김동환
 - 5) 군신사상의 식민지화 - 정인택
 - 6) 한국인 구원의 길 ‘황민화’ - 장혁주
 - 7) 민족적 굴종과 신분상승의 길 - 이광수
 - 8) 천황귀일로서의 민족합일 - 최재서
 4. 맺음말 - 친일문학이 다다른 곳
-

1. 머리말

친일문학(親日文學)이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지배 이념을 문학적으로 실천한 문학작품 및 문학활동을 이른다. 친일문학은 1930년대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까지 출현했으며, 당시의 용어로 ‘신체제문학(新體制文學)’ 혹은 ‘국민문학(國民文學)’, ‘국책문학(國策文學)’이라고 불리었다.

* 이 논문은 1910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에 의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일본근대사

친일문학의 다른 이름인 소위 ‘신체제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배경에는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제국주의의 ‘신체제운동(新體制運動)’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신체제운동’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을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으로 개편하고, 당시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한국에서의 ‘신체제운동’ 강령을 선언했다. 이것은 다시 1945년 7월 ‘조선국민의용대(朝鮮國民義勇隊)’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한국에 대한 총동원체제의 완성과 강화에 다름 아니다.

식민지 한국에서의 ‘신체제운동’은 한국인의 사상 통제 및 언론 통제는 물론,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요하였던 것이고, 문학자도 예외 없이 ‘신체제운동’의 참여와 실천이 요구되었다. 한국 문학계의 ‘신체제운동’은 1939년 10월 ‘조선문인협회’(회장 이광수)의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신체제문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문학잡지가 1941년 11월 최재서(崔載瑞)에 의해 창간된 『국민문학(國民文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전반까지 각양각색의 ‘신체제문학’ 논의가 부침했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前提)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이념인 소위 ‘황민화’와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다시 말해 ‘신체제문학’이란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문학적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한국에서의 ‘신체제운동’이 그러하듯이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신체제문학’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친일문학이라 불리는 소위 ‘신체제문학’의 정체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7월에 공포(公布)한 헌법 제101조에 의거,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으나, 독립 후의 정치와 사회적인 혼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비호, 1950년의 한국전쟁 등 험난한 격동기 속에서 끝내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역사의 한 과거사(過去事)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상흔으로서 살아 남아 있다. 역사는 반전(反轉)하여 독립 후의 한국에서 항일문학은 역사의 각광을 받아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로 정착되어 갔으나, 친일문학은 당연히 역사의 부끄러움을 상징하여 친일문학자들은 ‘친일파(親日派)’로 일괄되어 기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66년에 임종국(林鐘國)의 『친일문학론(親日文學論)』(平和出版社)이 출판되자 비로소 친일문학의 실체가 드러났으나, 전반적인 작품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1986년 실천문학사에서 『친일문학작품선집』 2권과 『친일논설

선집』을 출판했으나 역시 작품 소개의 성격이었다. 이후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식민지적 정신 풍토의 천착(穿鑿)과 극복의 계기로 살아나지 못하고 역사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친일문학을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이념인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여 실천했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양상과 논리성 및 이들의 문학 활동을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신체제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그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친일문학의 이데올로기 - ‘황민화’와 ‘내선일체’

여기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한국 지배이념이며 한국에 대한 거대한 위선적 시혜의식의 결정체로서의 ‘황민화(皇民化)’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통치의 소위 ‘대정신(大精神)’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韓日併合)에 즈음하여 나온 일본 천황(당시의 明治)의 소위 조서(詔書)에 나타나 있다. 거기에 의하면,

‘(한국-인용자) 민중은 직접 짐(朕)의 수무(綏撫)하에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며……짐은 특히 조선총독(朝鮮總督)을 두어 짐의 명령을 받아 육해군을 통솔하여 제반의 정무(政務)를 통할(統轄)하게 한다.’¹⁾

라고 규정, 한국인을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하여 직접 통치할 것을 천명(闡明)했다. 또한 1919년 3·1독립운동 후에 나온 ‘제도개정(制度改定)의 조서(詔書)’에는

‘짐은 일찍부터 조선의 강녕(康寧)을 마음에 두고 그 민중을 애무(愛撫)함에 있어 일시동인(一視同仁), 짐의 신민(臣民)으로서 추호(秋毫)의 차이도 두지 않고 각각 그 있을 곳을 얻어 그 생활에 안락함을 도모하여 한결같이 휴명(休明)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왔고……’²⁾

라고 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선언함과 동시에 한국인이 ‘황국신민(皇國臣民)’임을 재천명했다. 이후 역대 조선총독은 이 두 개의 조서에 나와 있는 소위 ‘성지(聖旨)’를 받들어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1) 朝鮮總督府 『併合の由來と朝鮮の現狀』 朝鮮印刷株式會社 1924. 1頁.

2) 위와 같은 책. 2頁.

소위 ‘황민화’와 ‘내선일체’라는 동화정책으로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으로, 식민지 한국에서 팔방미인(八方美人)의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물론, 한국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하는 억압기조로서의 행동규범이 되었던 것이다.

소위 ‘황민화’와 ‘내선일체’는 동화정책의 일신양두(一身兩頭)가 되어 ‘황민화’가 주로 도덕적 규범으로써 정신면을 강조하여 일본제국주의에의 충성심을 강요한 데 대해, ‘내선일체’는 소위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내세워 역사적 근거 제시를 피해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즉 ‘황민화’는 ‘조선민중 2천 5백만 모두가 국체(國體)의 본의(本義)를 관철하기 위해 철저히 황국신민으로서의 수양(修養)과 연성(鍊成)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것’³⁾이고, ‘내선일체’는 ‘하나의 조상(祖上)으로부터의 피의 연결에 기초하여 필연적이고도 발전적인 환원’⁴⁾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므로 친일문학으로 불리는 소위 ‘신체제문학’이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무한확대 혹은 무한 연장선상의 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식민지 한국에서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제재(題材)로 하여 창작, 비평하는 문학이 되는 것이다. 국난 극복의 오랜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단 30여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굴복한 친일문학의 다른 이름인 소위 ‘신체제문학’ 논의는 당시 지식인의 안이한 현실타협과 위기의식에 대한 값싼 자기파배의 산물이며, 지식인의 현실 인식의 중요성을 점검하는 역사의식의 담론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진정한 국민문학의 필요성이 절규되는 위기상황하에 그것을 위해 치열하고 가열(苛烈)한 모색을 계속한 항일문학의 한 옆에서 친일문학으로서의 소위 ‘신체제문학’은 초라한 모습으로 반역의 늪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3. 친일문학의 양상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1941년 11월 최재서(崔載瑞)에 의해 창간을 본 문학잡지 『국민문학(國民文學)』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창간 벽두 ‘조선문단의 혁신과 재출발’을 호언한 이 잡지의 편집요강은 급변하는 시국의 종합적인 반영이며 소위 ‘신체제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1) 국체관념(國體觀念)의 명징(明徵) - 국체에 반(反)하는 민족주의적 사회주

3) 朝鮮總督府 『新しき朝鮮』 朝鮮行政學會 1944. 25頁.

4) 위와 같은 책. 15~16頁.

- 의적 경향을 배격함은 물론이고 국제관념의 명징을 지키지 않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경향을 절대 배제한다.
- (2) 국민의식의 양양(昂揚) - 조선 문화인 전체가 항상 국민의식을 갖고 사물을 생각하고 또한 쓰도록 유도한다. 특히 끓어 오르는 국민적 정열을 그 주제에 담을 수 있도록 유의한다.
 - (3) 국민사기의 진흥 - 신체제(新體制) 하의 국민생활에 맞지 않는 비애, 우울, 회의, 반항, 음탕 등의 퇴폐적 기분을 일소할 것.
 - (4) 국책(國策)에의 협력 - 종래의 불철저한 태도를 일척(一擲)하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난관 극복에 정신(挺身)한다. 특히 당국이 수립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지 협력하여 각각의 작품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노력한다.
 - (5) 지도적 문화이론의 수립 - 변혁기에 조우한 문화계에 지도적 문화이론이 되어야 할 문화이론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할 것.
 - (6) 내선문화(內鮮文化)의 종합 -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실험적 내용이 될 내선문화의 종합과 신문화의 창조를 향해 모든 지능을 총동원한다.
 - (7) 국민문화의 건설 - 총체적으로 웅혼(雄渾), 명량, 활달한 국민문화의 건설을 최후의 목표로 한다’(인용자역) 5)

이 잡지는 창간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창간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어 출발부터 일본제국주의 어용잡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신문에서 『매일신보(每日新報)』가 담당하는 역할을 문학에서 『국민문학』이 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재서에 의하면 창간호부터 ‘용어(用語)에 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이 잡지는 총독부와의 협의 결과 년8회는 한국어판, 4회는 ‘국어(일본어)’판으로 낼 예정이었으나, 본래 『국민문학』은 지식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식계급은 ‘국어’를 해독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솔선하여 용어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띠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⁶⁾

그 때문에 1942년 5, 6월 합병호부터 전면적으로 일본어판으로 바뀌었다. 최재서는 그 이유를 1941년 12월 8일의 소위 ‘선전(宣戰)의 대조(大詔)’ 즉 일본제국주의의 미국에 대한 선전 포고와 1942년 5월 한국에 공포된 징병제에 감격하여 국어(일본어)와 한국어의 병용이라는 ‘과도기적 조치’의 청산을 결의했다고 되어 있다.⁷⁾

이렇게 하여 한국에 단 하나 남아 있던 문학잡지로부터도 한국어는 말할당

5)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 『國民文學』 1942. 8月號. 12~13쪽.

6) 위와 같은 책. 13쪽.

7) ‘國語雜誌への轉換’ 『國民文學』 1942. 5・6月合併號 44~45쪽.

했다. 나아가서 최재서는 ‘조선어는 최근 조선의 문화인에게 있어서는 문화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민의 씨앗이다. 이 고민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한 우리의 문화적 창조력은 정신적 수인(囚人)이 될 뿐이다’⁸⁾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문학자에게 자신의 모국어가 ‘고민의 씨앗’이 되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식인이 ‘정신적 수인(囚人)’이 되어 문학자 스스로가 모국어를 버리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으로 둔갑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문학계 스스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1943년 4월 ‘문학자의 총력을 대동아전쟁의 목적에 집결’하기 위해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를 해체하고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가 발족했을 때, 『국민문학』은 ‘결전문학(決戰文學)의 확립’을 내세우며 문학의 소위 ‘성전(聖戰)’ 수행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시국에 편승하는 소위 ‘신체제문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였다. 이 시기는 시국론으로 시작되어 전쟁문학, 애국문학 혹은 총후문학(銃後文學)⁹⁾이라 불렸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그 전쟁을 소위 ‘성전’이라 부르면서 전쟁열기가 차차 식민지 한국에까지 밀려 오자, 소위 ‘신체제문학’은 결전문학이라 불리며 그 주장하는 내용의 강도도 높아져, 이속고 용어문제라는 명목으로 한국문학자 스스로가 한국어를 버리는 곳까지 가 버렸다.

일반적으로 소위 ‘성전(聖戰)’이라는 용어는 1937년 7월부터의 중일전쟁(처음에는 北支事變, 1937년 9월 2일부터는 支那事變, 1941년 12월 13일부터는 태평양전쟁을 포함하여 大東亞戰爭으로 개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¹⁰⁾

중일전쟁 이후 친일문학 곧 ‘신체제문학’이 부르짖는 구호도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시작으로 소위 ‘성전’의 수행, ‘대동아공영권’, ‘팔괘일우(八紘一字)’, ‘신주불멸(神州不滅)’ 등 격렬해져만 갔다. 또한 그 논의가 시국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권력의 중요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한국의 민중에게 어떠한

8) ‘編輯を了へて’ 위와 같은 책, 208쪽.

9) 총후(銃後)라는 용어는 전쟁시에 전장(戰場, 國外)과 총후(銃後, 國內)라는 대립개념으로 쓰인 말로 일본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근대전(近代戰)이 총력전 개념으로 바뀐에 따라 총후문학이라는 용어도 결전문학으로 대체되어 갔다.

10) 그 시초는 역시 일본제국주의 군부(軍部)로 1937년 11월 18일 육군성(陸軍省) 신문발행의 ‘시국(時局)의 중대성’이라는 팜프렛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원래 이번 사변은 일면적으로 관찰하면 일본과 지나의 분쟁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좀더 깊은 각도에서 관찰하면 무모한 배외사상, 위험한 공산주의, 패도적 제국주의를 옹정하여 세계에 국제정의를 확립하려는 신국(神國) 일본의 성전(聖戰)인 것이다.(陸軍省新聞班『時局の重大性』1937. 11. 18. 66頁)

영향을 끼치는가를 돌아 볼 여유도 없이 마치 정책을 앞지르듯 선견성(先見性)마저 보여 가며 항상 시국의 중심적 존재로 남으려 했고 또 주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끌벅적한 환소(喧騷)에 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꼭둑각지에 지나지 않았음은 물론, 조국관념의 상실로 인해 시대에 대한 통찰력, 미래에 대한 대응력 하나 확보하지 못한 채 다만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통치이념에 충실히 굴종한 한국 지식인의 반민족적 현실참여로 끝났다.

1) 친일문학에 이르는 과정 - 이석훈

이러한 ‘신체제문학’을 문학자가 수용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에 이석훈(李石薰, 牧洋)의 ‘조용한 폭풍(靜かな嵐)’ 연작(제2부 ‘夜’, 제3부 ‘善靈’)¹¹⁾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태민(朴泰民)도 한때는 민족주의적 작가의 한 사람이었다. 한국인에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의식과 시국의 중대성을 고취하기 위해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문예강연대(文藝講演隊) 대원으로 지명된 박태민은 ‘소승적(小乘的)인 민족주의 입장’을 극복하고 ‘대승적(大乘的) 지성과 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한 ‘회의와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이 강연회에 참가할 결심을 한다.

함경도(咸鏡道) 지방을 지원한 그는 금번의 행사에 한국의 문학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못내 섭섭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또한 그는 친구인 신진작가 고영목(高永睦)이 시국 비판의 죄목으로 검거된 소식을 듣고 놀라는 한편 걱정과 불안감이 교차한다. 동시에 그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공포와도 같은 엄숙함’을 실감으로 느낀다. 이리저리 동요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는 아내의 권유대로 많은 추억이 배어 있는 러시아 잡지를 태워 버린다. 문학자에 대한 투서사건으로 원고를 압수당한 박태민은 주재소(駐在所) 주임인 다케나카(竹中)로부터 단순한 필적 감정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도 안절부절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드디어 강연대와 합류하여 밤기차를 타고 자신에게 다짐하듯 혼잣말을 한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제1부).

강연회에서도 그는 함흥(咸興)의 강연에서는 청중이 도중에 자리를 뜬다든지 나선희(羅仙姬)라는 옛날 여자 친구로부터는 ‘농담인가, 호신술인가, 진심인가’라는 힐문과 비판의 말을 듣고 현저하게 사기가 떨어져 버린다. 성진(成津)에서는 한국인 청년기자로부터 ‘작가의 타락’이라고 매도당한데다가 폭행까지

11) 李石薰 ‘靜かな嵐’(第一部) 『國民文學』 1941. 11月號, ‘夜’(第二部) 같은 책 1942. 5·6月合併號, ‘善靈’(第三部) 같은 책 1944. 5月號.

당한다(제2부).

그러나 그는 나머지 청진(淸津), 나남(羅南), 원산(元山), 춘천(春川)에서의 강연회를 마치고 이러한 시련을 체험으로 극복, ‘조선의 진로를 확신하는 황국 신민’이 되어 간다. 이러한 중에도 시국은 긴박해져 지원병제도의 실시, ‘창씨 개명(創氏改名)’, 태평양전쟁의 발발, 징병제 실시의 발표 등 급변하여 간다. 박태민이 ‘조선이 나아갈 길이 확실히 결정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던 어느날, 나선희와 그에게 폭행을 가했던 청년기자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는 그들도 ‘조선민족의 진로’에 확신을 가질 만큼 자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황민화’를 실천하게 된 박태민은 신사(神社) 참배는 물론이고 성지(聖地) 순례단에도 참가한다. 또한 총독부의 어용단체도 가입하며 ‘내선일체’의 이념을 주제로 한 소설도 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박태민은 정신적 동요와 혼란이 깊어 간다. 존경하는 선배로부터 경멸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신사참배에 늦어 관계자에게 꾸중도 듣고 가입한 단체로부터 탈퇴할 결심을 하는 등 갈팡질팡한다.

군대의 보도연습반(報道演習班)에 참가했을 때에는 아츠섬의 옥쇄(玉碎) 소식을 듣고 신경질적이 되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와 좌충우돌하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친일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玄)이라는 시인에게 ‘이 몇 년 간의 울적해진 감정의 폭풍’을 터뜨리며 맹렬하게 폭행을 가한다. 이윽고 박태민은 문학자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만주(滿洲)로 건너가 죽은 동생의 장례를 지내며 다시 한번 생활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제3부).

이 소설은 당시의 한국문단의 분위기, 문학자의 시국행사 참가와 한국인의 반응과 민족의식, 시국의 긴박성, 신문 잡지가 폐간 정리되어 발표 기회가 줄어든 문학자들의 생활난과 자기모순을 묘사해 당시 한국 문학자가 처한 현실을 단면도처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진오(兪鎭午)는 ‘조용한 폭풍’을 평해 ‘주인공의 사상적 전신(轉身)의 정체가 확실하게 추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침예한 각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행동인의 행동이 되지 못하고 문단적 범주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¹²⁾ 유진오의 지적대로 주인공 박태민은 회의(懷疑)를 위한 회의, 방황을 위한 방황을 거듭하는 문약한 지식인에 불과하고 줄거리 또한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작위성(作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문학자가 소위 ‘신체제문학’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얼음과 같은 침묵’으로 응시하고 있는 한국인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체제문학

12) 兪鎭午 ‘知識人の表情’ 『國民文學』 1942. 3月號. 6~7쪽.

자’ 곧 친일문학자의 피해의식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주인공 박태민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은 곧 이석훈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이석훈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警務局) 검열계(檢閱係)에 취직한 소설가 이효석(李孝石)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

‘취직한 지 보름도 안 되었을 즈음 직장에서 광화문통(光化門通)으로 내려 오는데 이갑기(李甲基)라는 청년을 만났다. 문학을 하는 청년이었다. 조금 안면이 있었다. 이(李)는 다짜고짜 험상궂은 얼굴을 하더니 “너도 개가 되었구나”하고 내뱉었다. 대로상에서의 봉변이었다. 금방 주먹으로 한대 칠 듯한 기세였다. 그러잖아도 피해망상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죄악감과 피해망상에서 피로해진 소심한 그의 신경은 감당치를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13)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영문과 출신인 이효석은 졸업하고도 취직자리가 없었다. 겨우 찾은 곳이 동포의 원고를 검열하는 곳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직장을 내던졌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이효석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친일문학자 곧 소위 ‘신체제문학자’들 공통의 켤감이었던 것이다.

이석훈(李石薰)의 ‘조용한 폭풍’ 연작의 주인공 박태민도 후반에 갈수록 불리해지는 전황(戰況)을 반영하여 초조함과 불안과 동요를 드러내 어찌면 명예스러울 수도 있는 문학자대회의 대표도 사양하고 만주로 달아나는 것은 ‘신체제문학자’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석훈은 어떻게 하여 ‘조선의 진로’를 발견했을까. 주인공 박태민의 연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조선의 오랜 역사를 회고할 때 그 중추(中樞)가 없고 통일도 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 할 수 밖에 없다. 옛날에는 신라의 조각, 고려의 도자기, 조선시대의 서화와 같이 뛰어난 예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핵체가 없는 국가, 통일이 없는 민족사회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탁월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인가. 아니, 위에는 정치를 하는 군주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이 진실한 중추로 떠받들며 죽음으로 모신 군주가 될 수 있었던가. 동포가 서로 굳게 단결한 유대가 될 수 있었던가.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대륙에 추종하고 아부나 하는 데 세월을 보냈던 한심스러운 꼴이 아니었던가. 삼천 년이란 세월은 인간이, 민족이 시험받기 위해서는 너무도 긴 세월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일본이라는 커다란 생명체의 운명 속에

13) 柳宗鎬 ‘李孝石」『韓國의 人間像』第五卷(文學者篇) 新丘文化社 1967. 515~516쪽.

속해 있다. 그것은 삼천 년이라는 오랜 시험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 엄숙한 운명의 연대성에 눈을 감는 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태만하고 비열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스스로 암흑의 운명으로 타락하는 자일 것이다.

나는 이상을 갖고 싶다. 휘황찬란한 행복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동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휘황찬란한 행복을 나누어 갖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커다란 로망을 갖자. 우리가 행복의 피안(彼岸)에 일본이라는 광명을 찾아내어 민족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가지 않겠는가. 이 신화야말로 우리들의 새로운 창생기(創生記)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는 영원히 구제받으리라(인용지역)' 14)

박태민 아니, 이석훈은 결국 한국의 역사에 절망하여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통일하는 중핵체'로서의 천황제를 동경하여 '휘황찬란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광명(光明)'에 몸을 던져 동포에게도 그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안출한 천황제의 역사적 확대 해석과 현인신사상(現人神思想)에 흠뻑 취한 이석훈은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버린 정신적 의지처를 천황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한국의 역사 부정과 불신은 소위 '식민지사관'과 '내선일체'의 원리와 통한다.

이석훈의 '조용한 폭풍'은 1943년 제1회 '국어문예총독상(國語文藝總督賞)'을 둘러싸고 김용제(金龍濟)의 '아세아시집(亞細亞詩集)', 사토 기요시(佐藤清)의 '벽령집(碧靈集)'과 최종심사까지 각축을 벌였으나 김용제의 '아세아시집'으로 결정이 나, '조용한 폭풍'은 신설된 '국어문예연맹상(國語文藝聯盟賞)'으로 돌려졌다.

2) 천황주의에의 종교적 귀의 - 이광수

이러한 한국의 친일문학으로서의 '신체제문학'을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광수(李光洙)였다. 이광수의 친일문학 즉 '신체제문학'은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창씨개명'의 변이야말로 이광수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정신적 위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으로부터 이천 육백년 전 신무천황(神武天皇, 일본 신화의 초대천황 —인용자)께옵서 어즉위하신 곳이 가시와라(橿原)인데 이곳에 있는 산이 가구야마(香久山)입니다. 뜻깊은 이 산 이름을 씨로 삼아 가야마(香山)라고 한 것인데

14) 李石薰 '夜' 『國民文學』 1942. 5·6月合併號. 195쪽.

그 밑에다 광수(光洙)의 광(光)자를 붙이고 수(洙)자는 내지(內地)식의 량(郎)으로 고쳐서 가야마 미츠로(香山光郎)라고 한 것입니다’ 15)

‘창씨개명’에 즈음해서 이름을 소위 ‘야마토 삼산(大和三山)’에서 따올 정도로 이광수의 ‘황국신민’으로서의 모범생의식은 살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자기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동반하므로 착실한 소년적 순진성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방통행적 향상심으로 작용하므로 부여된 상황에 대한 반응은 놀랄 정도로 진지하고 정직한 것이다.

즉 배운 것, 본 것, 부여된 것에 대해 선별적 가치판단에 의한 지적 여과과정을 생략해 버린 채,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자기이상화(自己理想化)해 버리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지배의 간계(奸計)인 ‘창씨개명’을 이상화하는 것도 그것의 일종이다. 거기에는 사상의 발전적 축적 대신에 단편적 자기성실성(自己誠實性)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즈음 이광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 모든 것을 바치리 》

황은지극(皇恩至極)하옵시니

피로써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옵신 지 얼마 안되어 이제 또 정치력으로 황철(皇澈)을 익찬(翼贊)하여 받들라고 하옵신다. 조선의 아들들이 총을 들고 전선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충성스런 경륜을 안고 의정단상(議政壇上)에 나서리.

병역이 엄숙한 의무이며 존귀한 황민(皇民)의 특권이었던듯이 국정 참여는 공민(公民)의 특권인 동시에 극히 엄숙한 의무이니라.

황국(皇國)은 앞서 삼천만의 폐하의 고굉(股肱)을 더하였음과 같이 황국은 이제 또 삼천만의 보필(輔弼)의 신(臣)을 더하였다.

일억일체(一億一體)로 황국을 지키자, 일억일체로 황모(皇謨)를 익찬하자. 이제 피(彼)와 차(此)가 없다. 오직 하나이다.

자,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더 큰 싸움을 이기게 하자.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대아시아 건설을 완수시키자.

이러므로써 비로소 큰 은혜에 보답하여 받들이 되리라.

아아,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 모든 물건을 바치자

15) 李光洙 ‘指導者 諸氏 選氏 苦心談’ 『每日新報』1940. 1. 5.

우리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모든 피를 바치자
 우리 충성에 불타는 머릿속을, 심장을 바치자.
 동포야 우리들, 무엇을 아끼랴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올리자
 우리 임금님께, 우리 임금님께 16)

이 시는 1945년 4월 소위 ‘외지동포처우개선(外地同胞處遇改善)’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제국주의의 귀족원령중개정안과 중의원의원선거법중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으로부터도 칙선귀족원의원 7명과 중의원의원 23명을 일본제국주의의 국회에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1월 17일 ‘처우감사궐기대회’에서 낭독한 시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패전에 임박하여 선심용으로 던져준 소위 ‘처우개선’을 ‘내선일체’의 실현으로 착각하여 더욱 더 충성을 맹서하는 이광수의 감격벽(感激癖)에는 말 그대로 질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한국문단의 중심적 존재로서 때로는 민족주의자로, 때로는 교육자 사상이 언론인 실천운동가로, 때로는 문학자로 시 소설 평론 수필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다면적 활동을 펼쳐 항상 화제의 주인공, 물의의 표적이 되었던 이광수, 그는 친일문학에서도 어김없이 한발 앞서 가며 중심적 위치를 고수했던 것이다.

3) 징병제 실시의 감격과 피로서 이루어지는 ‘내선일체’ - 최재서

최재서는 이 무렵 ‘신체제문학’의 실천으로서 징병제를 제재로 한 ‘보도연습반(報道演習班)’이라는 소설을 썼다. 소설 ‘보도연습반’은 잡지사에 근무하는 문학자 송영수(宋永秀)가 조선군 보도부의 명령으로 ‘문화보도전사연성(文化報道戰士鍊成)’에 참가, 대동강변의 대동창영(大同廠營)에 입영하여 군인정신과 충군애국을 깨달아 간다는 소위 ‘황민연성(皇民鍊成)’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소설 속의 송영수는 최재서 자신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주인공 송영수는 ‘만주사변, 지나사변(支那事變 = 중일전쟁),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 태평양전쟁) 등 연속되는 강렬한 지진에 의해 땅이 무너져 내려도 그것을 날렵하게 뛰어 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의 사실의 의미를 그의 이론이 소화시킬 때쯤이면 또 다른 두 개 세 개의 사실들이 그의 발 밑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숫물은

16) 李光洙 ‘모든 것을 바치리’ 『每日新報』 1945. 1. 18.

점점 먼 바다로 밀려 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갯벌에 떠밀려 온 나뭇조각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시국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보도연습반’에 참가하는 ‘모험’을 감행하고부터는 그의 가슴에 ‘황국 신민’으로서의 신념이 확실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만난 한국인 지원병들의 ‘당당한 체격, 엄숙 단정한 태도, 자신만만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얼굴 표정, 그 중에서도 그들의 칼라에서 빛나고 있는 별 견장(구일본군 복장의 일부)처럼 빛나는 눈동자와 격렬한 신념에 찬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음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말 속에 나타나는 진지함, 성실함, 확신, 정열’을 확인하고 징병제의 성공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마음 속으로 ‘젊은 조선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되뇌인다. 송영수는 훈련 도중 휴식시간에 눈 앞에 전개되는 한국의 농촌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렇다, 여기에는 초목처럼 짧디 짧은 생명이 매일처럼 거친 숨을 쉬고 긴장하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단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스러운 농촌과 거칠은 군대훈련! 이 두 개념은 송영수의 머리 속에서 얼른 결합되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주위를 뒤돌아 보았다. 저 산처럼 유구한 야마토민족(大和民族), 그 유구한 생명력으로부터 더욱 더 비약하려는 저토록 짧디 짧은 일본국. 그렇다, 일본은 지금 저 초목처럼 활기에 넘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비약만이 동아의 10억을, 아니 세계의 파탄을 구할 수 있다. 조선 2천 7백만을 내지 동포 7천만을 도와서 이 성스러운 과업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용자역).’ 17)

그리고 이러한 농촌으로부터 나온 조선인 지원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전부 000 지방 출신으로 모두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아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고를 안고 막일꾼으로 혹은 토목공사로 혹은 만주에서의 희망 없는 방랑의 세월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학교를 동경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학문이라는 것에 얼마나 열등감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송영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징병제의 실시는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어서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생각하듯 관리나 마을 유지의 강요로 군문을 들어선 것이 아니

17) 崔載瑞 ‘報道演習班’ 『國民文學』 1943. 7月號. 33~34쪽.

었다. 어머니의 반대와 친구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한 반대를 이겨내고 그들은 벌써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훈련소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들의 나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報恩)의 마음이 귀동냥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님이 단번에 수궁이 갔다.

그러나 뭐라고 해도 그들이 군대에 들어와 이룩한 성장은 커다란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조선인은 다른 사람의 보트에 타고 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저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오오하라(大原) 상등병은 말했다. 이것이 소학교를 나왔을 뿐인 22, 3세 청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소박한 말 속에는 어떠한 정치가의 웅변보다도 어떠한 시인의 문장보다도 뜻깊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오오카와(大川) 상등병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청원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차서 찾아 왔습니다. 그 중에는 19살 된 아우를 둔 저의 친구가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지원병이 되어서 잘 됐다. 내 아우도 어짜피 징병되어 갈 바에야 지원병이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도 유식하다는 말을 듣는 청년이 이렇게 정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징병이 되어서 입대했대서야 말이 안 되지요. 가슴 속 깊이 황국신민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들어 와서부터가 더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얼마나 심긋한 진리가 숨어 있을까?

소학교 3년 밖에 다니지 않았다는 기요모토(淸本) 상등병은 솔직하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내지인 사회가 훌륭한 것은 군대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군대훈련을 받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인(민간인)을 비웃는 일본제국주의의 군대 용어 — 인용자)은 아무리 해도 군대와 같이는 될 수 없으니까요” 이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선서식날 보도부장이 한 “병영은 인생대학이다”라는 말의 실증이기도 했다.

군대에 들어와서 괴로운 일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들 미소를 흘릴 뿐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과연 그들은 그 괴로움을 미소로 기억할 만큼 성장해 있는 것이다. 그 대신 감격했던 기억을 하나 들쭉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감격이란 간단히 말해 내무반이 친절하다는 것과 상관들이 내지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대해 주므로 내지 출신의 전우들과는 진실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데서 오는 것 같았다. “나는 장래 내지 동포와 일심동체가 되어 제일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가네모토(金本) 상등병의 말은 이윽고 10명의 목소리가 되고 그것은 또한 내무반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울려 퍼지는 함창임에 틀림 없었다. 어떠한 문제나 논의라도 이곳에서는 단순한 실천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되는 듯했다. 그리하여 충군애국이라는 말이 하나하나의 동작으로 번역되어서 확실하게 소화되어 가는 듯했다(인용 지역).’ 18)

근대 일본 군대의 중요한 기반은 농촌이었다. 농촌은 말하자면 장병의 공급원이었던 것이다. ‘양병양민(良兵良民)’의 사상에 입각하여 군대는 항상 일반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군대를 사회교육의 원점에 놓으려는 ‘국민교육의 장’ 즉 ‘국민의 학교’로 간주했던 것이다.19)

‘천황의 군대’로서의 정신교육을 중시한 일본제국주의의 군대는 정신주의가 맹위를 떨쳐 복잡한 억압구조 속에서 곁마음(建前, 다테마에)과 속마음(本音, 혼네)의 괴리가 심각한 문제로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최재서의 소설에도 이 점은 나타나고 있다. 지원병이 농민의 아들이라든지, 군대를 ‘인생대학’으로 묘사해 근대주의로 보고 있는 점, 최재서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바 지원병이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발언은 세뇌교육에 의한 곁마음의 표출이라는 점, 군인들이 소위 ‘지방인’인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은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최재서의 목적의식이 선행되어 작자 자신의 시국에 대한 의식적인 성실성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소설 전체가 곁마음의 표출에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서가 그토록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지원병의 생활은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 식민지 출신의 병사들은 많은 수가 도망을 기도했던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언어와 생활습관 등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에 시달리고 개인적 제재(制裁)의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편견과 차별감정은 일본인 병사에 공통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조선인 지휘관에 대한 비판적인 언동도 서슴치 않았다.’ 20)

피지배민족의 인간이 지배민족의 군대에 입영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은 최재서의 관찰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작위성에 넘쳐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재서에게는 문학은 예술 혹은 정신적 산물이 아니라,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하나의 목적에

18) 위와 같은 책. 46~48쪽.

19) 大濱徹也, 小澤郁郎 『帝國陸海軍事典』 同成社 1984. 7頁.

20) 위와 같은 책. 17頁.

불과했던 것이다. 더욱이 징병제란 ‘황국신민’이 되어야 하는 한국인의 의무이고,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4). 지원병제 실시와 출세주의로서의 ‘내선일체’ - 김동환

지원병을 제제로 한 작품 중에는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로 창씨개명)의 ‘권취천명(勸君就天命)’이란 시도 있다. 그 일부분이다.

‘이인석(李仁錫) 군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았던가
그도 병(兵)되어 생사를 나라에 바치지 않았던들
지금쯤 충청도 두메의 이름 없는 농군이 되어
베옷에 조밥에 한평생 묻혀 지내었겠지
웬걸 지사, 군수가 그 무덤에 절하겠나
웬걸, 폐백과 훈장이 그 젓상에 내렸겠나.

그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
변호사를 하겠지, 교사나 중역이 되겠지
그러나 한편 남대문과 종오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대의 처자는 미영병(米英兵)에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리
이 일은 파리 대학생과 이태리 학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조국을 나아가 막지 않는 자엔 천벌이 내리느니라!”²¹⁾

이인석(李仁錫)은 식민지 한국의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으로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입영하여 중국 산서성(山西省) 방면의 전투 중 1939년 6월 22일 전사했다는 ‘반도 출신 지원병 최초의 전사자’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부는 그를 신격화하여 식민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병 동원의 절호의 선전자료로 이용했다.²²⁾

또한 ‘귀축미영(鬼畜米英)’사상은 식민지 한국에도 대대적으로 선전되어 있음이 이 시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1942년 3월 일본제국주의 군부는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아시아의 타민족에게도 느끼게 하여 영·미 숭배사상을 일소하기 위해’ 말레시아에서 사로잡은 약 천명의 포로를 식민지 한국에 끌고 와 시가행진을 시킨 사실이 있다. 이것이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軍事裁判, 1946~48, 東京)’에서 문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³⁾

21) 金東煥 ‘勸君就天命’ 『每日新報』 1943. 11. 6.

22) 朝鮮總督府 情報課 編 『新しき朝鮮』 行政學會 1944. 48~50頁.

김동환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이 시를 읽고 있다면 지원병 지원이 ‘천명(天命)’이고, 죽어서 유명해지지 않겠으나, 지원병에 지원하지 않으면 천벌이 내린다는 등 시적 표현과는 거리가 먼 구호가 직선적이고 노골적으로 튀어나와 이해하기에 주저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가난한 농촌 출신 젊은이의 목숨을 그야말로 주저함이 없이 가지고 놓고 있는 것이다.

1924년 한국 최초의 근대장편서사시 ‘국경의 밤’을 낸 김동환은 1929년 경북 공에서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박람회’ 개최를 즈음하여 총독부가 기자들에게 배풀어 준 선전비 200엔(圓)을 기반으로 잡지 『삼천리(三千里)』를 창간했다. 그는 1938년 전후의 소위 ‘신체제’에 적극적으로 영합하여 이듬해 1942년 5월호부터 잡지명을 『대동아(大東亞)』로 개제, ‘내선일체’와 ‘황민화’의 실천에 광분했던 천박한 출세주의에 내달렸던 문학자이다.

5). 군신사상(軍神思想)의 식민지화 - 정인택

한편 정인택(鄭人澤)은 1943년 ‘뒤돌아 보지는 않으리’라는 소설을 썼다. 지원병에 지원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이 소설 속에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이 그야말로 넘쳐 흐르고 있다. 그 일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 이제 곧 도쿄(東京)를 보여드릴게요. 벚꽃이 만발한 꽃의 도시 도쿄 말이예요.”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킬킬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나는 황공하웁게도 정국신사(靖國神社)에 모셔진다. 그러면 어머니는 유족의 한사람으로 나를 만나러 도쿄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도쿄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웃으면서, 나가서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라면 물론 내가 정말로 죽었을 때 울거나 한탄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천황 폐하의 방패가 되어 전쟁터에서 꽃으로 산화한 자식 때문에 보기 싫게 울며 슬피하는 일본의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훌륭하게 죽는다, 그것은 천황 폐하의 나라에 맞추어 태어난 남자가 가장 자랑으로 여길 일이며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결코 슬피할 일이 아니며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기는커녕 더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인용자역) 24)

23) 内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亂』 勁草書房 1987. 35~36頁.

이 소설은 한국인 아들이 한국인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의식하여 글자 사용에도 한자를 쓰지 않는다든지, 쉽게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가타가나(片假名)만을 쓴다든지 한글 표기법을 흉내내어 띄어쓰기를 한다는 등 자질구레한 잔재주를 피우고 있지만, 일본제국주의가 주장하는 ‘언어의 주술(言靈)’이 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자갈처럼 튀어 나와 최소한도의 리얼리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그 어느 누구도 ‘뒤돌아 보지 않는’ 졸작인 것이다. 이름도 없는 어린 지원병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처럼 태연할 수 있을까. 또한 이토록 초연한 사생관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한국인 어머니들이 일본제국주의가 말하는 ‘정국신사(靖國神社)’의 ‘군신사상(軍神思想)’을 얼마나 믿고 있었을까. ‘군국(軍國)의 어머니상’을 무리하게 날조해 낸 것이고, 소위 ‘황국신민’의 억지판이 조작되어 있다.

6). 한국인 구원의 길 ‘황민화’ - 장혁주

장혁주(張赫宙)의 소설 ‘순례(巡禮, 뒤에 ‘岩本志願兵’으로 개제)’도 한국인 지원병을 다룬 작품이다. 소설은 화자인 내가 고려신사(高麗神社, 日本의 埼玉縣 高麗郡에 있는 神社)에 참배를 가서 그 참배의 계기를 만들어 준 이와모토(岩本) 지원병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민지 한국에서의 지원병제도와 징병제 실시의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가슴이 두근거린’ 나(장혁주)는 식민지 한국의 어느 기관의 초청으로 단기입소 훈련을 지원한다. 거기에서 만난 지원병이 이와모토이다. 이와모토(岩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었다. 이와모토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계모의 가정에서 자란 데다 ‘군인이 될 수가 없어’ 비행을 거듭한다.

그러나 ‘소년××소 위탁생 교육장’이라는 마루오카학원(丸岡學院)에 들어가 ‘황민으로서의 연성’을 받는 한편 고려신사에 참배하고 천 이백 년 전의 한국인이 여기에 이주하여 일본인이 된 사실을 알고 ‘내선일체’가 거짓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윽고 한국인에게도 지원병이 ‘허가되었을 때’ 곧바로 지원한다. 또한 나는 ‘내선일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훈련소의 교관에게 ‘황민화란 말은 조선인에게는 고대로의 환원’이냐고 묻자 ‘단순한 환원이 아니라 황민에의 도약’이라는 대답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단기입소훈련 기간 중 다시 태어난 인간으로서 ‘황민화’를 실천하고 있는 이와모토를 보고 나는 ‘징병제의 실시는 조선의 황민화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24) 鄭人澤 ‘かえりみはせじ’ 『國民文學』 1943. 10月號, 33~34쪽.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는다. 일본에 돌아온 나는 마루오카학원을 방문한 후 고려신사에의 참배를 결심하게 된다. 고려신사의 경내를 향하면서 천 이백 년 전에 일족 1797명을 이끌고 이곳에 이주하여 ‘내지인’이 된 고려왕 약광(若光)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와모토를 각성시킨 그 감격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한 뒤 신전 앞에 서서 ‘이와모토가 한층 훌륭한 병사가 되고 조선동포 전부가 하루빨리 황민화를 완성하도록’ 비는 것이었다.²⁵⁾

이 시기(1943년)는 장혁주가 노구치 미노루(野口稔)로 창씨개명하고 ‘일본문학보국회’의 회원으로서 그 산하의 ‘대륙개척위원회’, ‘황도조선연구위원회’에 소속하여 ‘황민화’는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대륙 침략을 찬미하고 돌아다닐 때이다.

위의 소설에서도 장혁주는 한국인 소년 이와모토가 비행에 빠져든 원인을 일본에서의 민족차별에서 오는 어두운 가정환경보다도 일본제국주의의 군인이 되지 못하는 울분에 중점을 두어 이와모토의 입대 후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개과천선했다든지 계모가 참회한다는 식으로 호도, 이와모토 집안의 불화가 마치 ‘황민화’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날조하고 있다. 식민지 한국에 지원병제도가 실시되면서 이 가정의 갈등도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장혁주로서는 한국인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황민화’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실감은 장혁주에게는 사실이었던 듯 소설 속에서도 그 기쁨을 ‘조선에 지원병제와 그 뒤를 이어 징병제가 실시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가슴이 다 떨렸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니 일년 뒤에 불혹으로 혼자 뒤에 남겨지는 적막감이 잔재처럼 가라앉았다’²⁶⁾ 로 표현하고 있다. 친일문학에서 식민지 한국에의 징병제 실시는 한국인이 ‘황국신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의무이며 일본인과 대등하게 될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차별과 빈곤에 허덕이면서 비행을 거듭하던 소년이 의식 있는 일본인의 ‘황민연성’ 교육에 감화되어 역사적 근원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지원병에 입대, 그 꿈을 이룬다는 장혁주의 ‘순례’는 전형적인 ‘신체제문학’ 곧 친일문학 작품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체제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국책’에 충실한 것으로 최재서가 말하는 ‘국민 성격 형성력으로서의 문학’을 노리고 있다. ‘국민계몽’에 매진하여 모든 문제와 모순을 ‘일본이라는 조국관념’으로 수렴시켜 ‘내선일체’와 ‘황민화’로 해결하려는 획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25) 張赫宙 ‘巡禮’ 『每日新報』 1943. 9. 22. (이 작품은 1943년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연재되었다. 후에 ‘岩本志願兵’으로 개제되어 창작집 『岩本志願兵』에 수록되었다)

26) 위와 같음. 1943. 9. 7.

다.

이러한 소위 ‘국책’의 실천 즉 지원병과 징병을 비롯해 강제연행의 희생자가 주로 농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궁핍화가 거세게 몰아친 한국의 농촌은 수많은 유민의 무리를 생산했다. 이러한 한국 농촌의 경제적 궁핍과 젊은이의 영웅심을 노려 일본제국주의는 지원병, 학도병, 징병, 징용 나아가서는 여자정신대(중군위안부)까지 인력동원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동원된 한국인들은 저 명분없는 전쟁에서 온갖 차별과 억압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호소할 길 없는 울분으로 달래야 했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식민지 한국의 친일문학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이 명백해진 1943년에 이르러서도 ‘신주불멸(神州不滅)’을 맹신하는 ‘결전문학(決戰文學)’를 공허하게 외쳐대고 있었던 것이다.

7) 민족적 굴종과 신분상승의 길 - 이광수

이광수는 1941년 소설 ‘그들의 사랑’(『신시대(新時代)』 1941. 1~3월호 연재)을 썼다. 이 소설은 ‘내선인(內鮮人)’ 간의 애정문제를 비롯해 민족감정, 편견, 민족의식의 처리와 ‘황민화’의 필요성 등 당시의 모든 문제를 취급하려 한 이광수의 야심작이다.

이 소설은 지금은 이학박사로 가솔린 대용의 액체연료를 발명한 마키하라 가즈지(牧原勝治, 李元求)가 가난한 고학생 시절, 의학박사로 국학자요 한학자인 니시모토 집안에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일본정신을 체득해 가는 과정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원구(李元求)는 니시모토 집에 있을 때 니시모토 집안의 딸 미치코(道子)에게 구애한 일로 쫓겨 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덕화론자(德化論者)로 경성제대 교수인 이시모토 마사오(石本正雄)의 감화를 받은 경성제대 학생 니시모토 다다시(西本忠)는 동급생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이원구의 사정을 알게 된다.

다다시는 이원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또한 그를 ‘진정한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동생 다카시(孝)의 가정교사로 함께 살도록 한국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아버지 니시모토박사를 설득한다. 함께 생활하면서 다다시는 이원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조선동포 전체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조선인을 보는 눈이 ‘경계와 천착(穿鑿)’, ‘의심암귀(疑心暗鬼)’의 비뚜러진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한편 이원구도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심(日本神道)이 깊은’ 니시모토 집안에 비해 ‘조선인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방만하고 무질서한가’를 알게 되고 ‘조선에는 이 가정과 비교할 수 있는 집안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원구가 본 일본인의 미덕은 예의 바름, 청결, 정직성, 애타심, 근면성 등 최고의 가치뿐이었다. 또한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조선인이 일본인의 생활태도를 배워서 조선인의 나쁜 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니시모토 집안에는 다다시의 여동생 미치코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서로 애정이 싹트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원구의 ‘일본정신’의 수련도 순조롭던 어느날 추계야유회에서 친일발언을 한 이원구가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부분에서 소설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중단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잡지사는 ‘부득이한 중단’²⁷⁾이라고 쓰고 있다. 이광수는 이 소설로 또 다시 한국인의 분격을 산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도 이광수의 문제의식이 추구되고 있다. 우선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자세와 사명을 지적한 점이다. 이광수는 소설 속에서 경성제대 교수 이시모토 마사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동포를 이끌어서 천황의 충성된 신민이 되게 하는 일을 할 자가 누구나 하면 그것은 곧 그대들이란 말이다. 조선에 와 있는 내지인들이란 말이다. 관리나 교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일본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명을 졌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였는가. 못하였다. 그대들은 조선동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아니한가’²⁸⁾

이 이시모토교수도 이광수의 상투적인 일본인상 즉 이상적 인간상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일본인상은 당시의 차별구조로 보아 결국 이광수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다음이 한국인과 일본인 서로의 편견문제. 이 점에 대해서도 이광수는 맥빠진 해결방법을 보인다. 민족 간의 편견의 지적은 민족성에까지 비약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 이광수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을 한국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있다고 보아, 일본인을 모범으로 하여 한국인측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단위의 사고에 빠져 1926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를 조직하여 ‘인격수양과 완성’을 신조로 하는 이광수의 눈에는 일본인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구

27) 『新時代』 1941. 5月號. 編輯後記. ‘餘滴’ 304쪽.

28) 李光洙 ‘그들의 사랑’ 『新時代』 1941. 1月號. 155쪽.

제가 불가능한 민족인 것이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자민족 불신. 주인공 이원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광주학생사건을 보시오. 그것이 어떻게 조선 청년 전체에게 불행을 주었는가. 수백 명 학생은 지금 철창에 있소. 설사 그들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그들은 나라의 죄인으로 여러 가지 자격과 자유를 잃을 것이요. 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청년은 더욱 더욱 국가의 신임을 잃어서 엄중한 감시 밑에 있게 될 것이요. 다행히 이 어리석은 군중심리가 진정되었거니와’ 29)

이 발언에 분격한 한국인 동급생들이 이원구를 폭행하는 부분에서 이 소설은 중단된다. 이광수의 한국독립에 대한 불신은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한다.

이 소설에서도 이광수는 광주학생의거를 ‘군중심리’로 보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국가의 죄인, 비국민, 조선민족을 독살하는 자’로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도 이광수의 ‘무저항’의 정신이 노예적 복종임이 드러난다. 그의 ‘천황귀의(天皇歸依)’ 신념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1939년 『문장(文章)』에 발표한 ‘무명(無明)’의 연장이다. ‘무명’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치범인 주인공이 감옥에서 성자(聖者)의 얼굴을 하고 다른 죄수들에게 일본제국주의의 법을 지키라고 설교를 늘어 놓는다는, 구제할 길 없는 소설 내부의 자기기만적 모순이 드러나 있다.

다음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애정문제. 소위 경성제대를 다니는 인테리 이원구가 니시모토 집안의 딸 미치코를 연모하면서도 자신을 체념시키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독백이 나온다.

‘첫째로 미치코는 내지인이 아니냐. 내지인 중에도 상류계급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조선인이 아니냐. 조선인 중에도 빈(貧)한 조선인이 아니냐. 둘째로 미치코는 주인댁 아가씨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 집에 부쳐서 사는 서생이 아니냐. 안될 말이야! 안될 말이야!’ 30)

왕년의 자유연애론자이며 스스로 그것을 실천한 이광수가 왜 주인공의 의식을 이렇게까지 후퇴시키고 있을까. 자민족에게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설교한 그가 일본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봉건적 비련의 상념에 젖어드는 것일까.

물론 소설이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이제는 가솔린 대용의 액체연료를 발명한

29) 위의 책. 1941. 3月號. 302~303쪽.

30) 위의 책. 1941. 2月號. 266쪽.

대학자로 신분상승을 한 이원구와 미치코의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은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이지만, 이것도 결국 일본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양민족의 개인적 애정문제에까지 ‘황민화’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이광수의 ‘신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도 이광수의 일본인에 대한 민족적 비굴성과 왜곡이 드러난다. 이광수로서는 한국인은 소위 ‘황국신민의 연성’을 아무리 해도 언제까지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문학에 있어 이런 종류의 작품이 일본인에 의해 나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위 친일문학에 나타난 비굴하고도 치졸한 연애 놀음과도 같은 양민족의 애정문제도 결국은 한국의 친일문학자 곧 ‘신체제문학자’들의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소설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자기모순과 억지논리 때문에 독자의 비난이 없었어도 중단되지 않을 수 없는 졸작이었던 것이다.

8) 천황귀일로서의 민족합일 - 최재서

최재서는 ‘신체제문학’과 관련된 ‘내선일체’를 다음과 같이 썼다.

‘금후 일본문학은 한편으로 그 순수화의 도를 점점 높여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확대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갈 것이다. 전자는 전통의 유지와 국체의 명징과 연결되는 일면이고, 후자는 이민족의 포용과 세계신질서와 연결되는 일면이다. 전자가 천황귀일의 경향이라면, 후자는 팔굉일우의 표현이다. 양면의 운동은 아무런 모순당착도 없이 동시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일본정신은 능히 이 양자의 조화를 성취할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외래문화와 접하여 멋들어지게 그것을 소화시켜 왔고 또한 소화시킴으로써 국체관념을 보다 명백하게 하여 왔던 것이다(인용자역)³¹⁾

여기서 최재서는 소위 ‘내선일체’를 원심력으로서의 ‘팔굉일우’와 구심력으로서의 ‘천황귀일’의 양면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내선일체’에 있어서의 ‘팔굉일우’로부터는 ‘이민족 포용’과 ‘세계신질서’에 연결되는 ‘종합성’을, 또한 ‘천황귀일’로부터는 ‘국체의 명징’과 연결되는 ‘황민화’를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그에 게도 역시 ‘순혈론’의 불안은 있었다.

‘나는 중학생 시절,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씨의 어떤 문장에서 “조선에는

31) 崔載瑞 ‘朝鮮文學의現段階’ 『國民文學』 1942. 8月號. 17쪽.

국가가 없으므로 위대한 문학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말은 아직 사색이 여물지 않았던 당시의 나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머리 속에 늘여 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씨가 전향작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조선의 작가는 전향해도 돌아갈 조국이 없다고 말한 것이 여러 가지 과문을 일으킨 것 같다. 동정하여 한 말일 테지만, 잘못 된 동정이라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치곤란한 것이 민족론인데, 이것도 반도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보다 내지의 언론계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요컨대 나치스류의 순혈론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조선을 일부러 제외하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민문화 건설에 있어서 조선동포를 제외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내선일체론은 더욱 나아가서 신민족의 창성과 신문화의 창조에까지 이르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인용자역)³²⁾

이 문제에 대한 역사성에의 탐색이 그가 말하는 ‘일본국가를 발견하는 데 이르는 혼(魂)의 기록’³³⁾ 으로서의 소설 ‘비시(非時)의 꽃’과 ‘민족의 결혼’이다. ‘민족의 결혼’(『國民文學』 1945. 2월호)은 신라의 왕족 김춘추(金春秋)와 신라에 의해 멸망한 가야(伽倻) 왕족의 후예 김유신(金庾信)의 누이동생 문희(文姬)와의 결혼이라는 역사적 사실(史實)을 제재로, 신라인과 가야인의 화해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주역들을 결합시킨 사건을 형상화함으로써 소위 ‘내선일체’를 암시하려 한 작품이다.

김춘추는 뒤의 무열왕(武烈王), 김유신은 그때의 명장, 그리고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삼국통일후에도 한반도에 눌러 앉으려는 당(唐)나라를 몰아낸 문무왕(文武王)이다. 이 소설에서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은 신분상승

32) 위의 책. 16~17p. 이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약자(弱者) 짓밟기’ 발언은 당시의 한국인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듯 김용제(金村龍濟)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야시 후사오씨가 어딘가에 쓰기를 “우리들은 전향해도 돌아갈 조국이 있지만, 그들(조선인 — 인용자)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때 나는 저런, 저런, 실언(失言)이겠지 하여 문제시할 필요 없다고 여색한 위로를 하고 만 적이 있다. 그 당시의 조선의 전향자라 해도 전부 실제로 그렇게 보아서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야시(林)씨 자신의 당시의 의식이 조선의 전향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만한 자신이 없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제국이 조선인의 조국이라는(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야시씨가 인식하지 못한 단견(短見)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으며, 어쨌든 나로서는 쓸쓸했고 하야시씨를 위해 오히려 슬퍼했던 것이다. “우리들의 조국 일본”을 마음으로부터 외쳐 부르고 있는 조선의 인텔리겐차와 민중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라면 그 따위 발언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하야시씨의 조국관이 것처럼 결벽스럽고 편협했던 말인가. 나는 다만 역사의 이름으로 하야시씨가 다시 한번 오늘날의 조선을 진지하게 재인식해 주기를 기원한다’(金村龍濟, ‘日本への愛執’ 『國民文學』 1942. 7월號. 26쪽.)

33) 崔載瑞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6頁.

을 노린 김유신의 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민족의 결혼’으로 보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이것도 역시 최재서의 ‘역사의 환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관학자(官學者)들은 『일본서기』의 ‘임나(任那)’ 기술과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碑文)을 날조, 결합시켜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이 한국 남부를 식민지로 통치, 소위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가야(伽倻)에 두었다고 주장했다(任那日本府說).

따라서 최재서가 가야 왕족의 후예 김유신의 신라 조정에서의 혈연적 진출을 ‘민족의 결혼’이라고 보아 ‘내선일체’를 암시하려 한 것은 그 선구성과 역사적 실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환상’을 역사에서 찾아내려 한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문무왕은 그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능을 왜(倭)를 경계하기 위해 동해에 조성하도록 명했다. 이것이 유명한 ‘문무왕해중능(文武王海中陵)’인 것이다. 삼국통일 시기의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이해중능의 존재 등은 실로 당시의 신라가 반왜(反倭)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최재서의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일까. 소설의 부기(附記)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는 ‘후일담(後日譚)’에는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이 신라 왕위계승의 원칙인 골품제도에 의한 성골지배(聖骨支配)로부터 진골지배(眞骨支配)로 이행된 신분제의 개방성과 그 의의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있다.

이른바 ‘피의 개방성’에 대한 암시이다. 그러나 이것도 논점이 빗나간 비약논리이다. 자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난 부분적인 개방성을 타민족의 개방성으로까지 비약시켜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내선일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위 ‘내선일체’는 일개 신분제의 개방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간계(奸計)가 몇 겹으로도 굴절되고 압축된 민족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최재서의 자기모순과 비약논리는 결국 신라라는 조국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최재서가 ‘일본국가를 발견하기에 이르는 혼(魂)의 기록’이 ‘일본국가’가 아니라 ‘조국신라’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재서는 ‘피’를 찾기 위한 역사성에의 접근으로부터는 ‘혼’의 차원에서의 필연성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시(非時)의 꽃’(『國民文學』 1944. 5~8월호)은 삼국통일 이후를 배경으로 김유신의 아들 원술(元述)과 남해공주(南海公主)의 애정을 주제로 엮은 소설. 당(唐)나라 군사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도 살아서 돌아온 원술은 조국과 부모에 대한 죄인이 된다. 그후 원술은 당군(唐軍)과의 전투가 있을 때마다 복면을 쓰고 출몰하여 무공을 세운다. 국가의 위기를 구한 원술은 가을에 피었기 때문

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비시의 꽃’과 같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남해공주의 사랑도 뿌리치고 불도에 귀의한다. 소설 ‘비시의 꽃’은 자기희생적 구국애를 그린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어느 쪽이나 시국을 의식하여 쓴 것이지만 그 문학적 공간은 신라이다. 이것은 최재서가 신념으로서의 ‘일본’과 피와 혼으로서의 ‘한국’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결국 ‘내선일체’의 필연성을 탐색함에 있어 일본제국주의가 말하는 바 ‘조상으로부터의 피의 연결’에 입각한 피의 합일성의 검색에 의해서는 피와 혼으로서의 한국을 지양(止揚)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서는 오랜 역사를 이민족으로 각축하여 온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내선일체’를 ‘피의 연결’로 필연화 할 수 없는 혼의 차원으로서의 한국이 문화개념의 장애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의 신념의 측면보다는 논리의 측면 내지는 자기정체성(identity)의 확인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재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대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향일성적(向日性的) 문화교류를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의 종합성에 ‘귀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내선일체’란 한국이 그가 말하는 일본문화의 종합성에 ‘귀의’하는 것이요, 또한 그 종합성의 재현(再現)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귀의’의 결집체는 물론 천황이다.

‘피’로서의 한국은 ‘팔굉일우’라는 ‘이민족 포용’의 종합성 속의 일단위(一單位)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혼’으로서의 한국은 ‘천황귀일’에 의해 ‘황도(皇道)’ 속의 일단위로서 존재할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재서가 말하는 ‘신민족의 창성과 신문화의 창조’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다.

이광수가 소위 ‘내선일체’의 연원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모(皇謨)’로 규정,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한분 천황의 큰 마음’뿐이라 하여 한없는 천황애의 접근의식과 가치의존을 보이는 한편으로 역사적인 ‘피의 연결’을 주장하며 한국인의 더 많은 헌신으로 ‘순혈론’에 대응한 것에 비해, 최재서는 그가 것처럼 감격하여 맞이한 한국애의 징병제 실시를 ‘이민족 포용의 종합성’으로서의 ‘팔굉일우’를 실천하는 기회로 본 것은 물론이고, ‘내선일체’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불안과 의심’을 해소하는 ‘단적이고 명쾌한 해답’으로 규정, 이것에 의해 ‘반도인(조선인)은 명실공히 황국신민이 되어 대동아의 지도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아 그 유효성을 가지고 ‘순혈론’에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피의 희생 위에 선 권리의 획득인 것이다.

그러나 최재서의 이러한 신념도 현실과의 불협화음과 친일문학의 반민족성의 일방통행성에 의한 폐쇄회로에 떨어져 버린 듯, 다나카 히데미츠(田中英光)

의 소설 ‘취한 배’에는 최재서의 한 단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경석(輕石)과 같이 무뚝뚝한 얼굴로 최건영(崔健榮)이 들어온다. 이 사람은 오래 전 경성제대 개교 이래의 좋은 성적으로 영문과를 졸업하고 전에는 맑시즘 문예이론가로 조선 제일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 탓인지, 돌맹이 같은 완고함이 있어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본부(本府, 朝鮮總督府 一인용자)의 관리들에게도 불덩이 같은 기세로 대든다. 관리들은 끝에 가서는 언제나 권력으로 상대를 압도해 버린다. 그런 식으로 압도당했을 때 억울해 하는 최의 표정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둡고 슬프게 하는 처참함이 있었다. 그 때문에 누구나가 최의 가슴 속에 뭔가가 있고 솔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만큼 그의 이면의 생활은 역시 일본의 군관권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울어도 울어도 속이 후련하지 않은 건딜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취했을 때의 술버릇이 고약한 것은 유명했다. 가라시마(唐島)박사라도, 츠다 지로(都田二郎)라도 가리지 않는다. 가슴 속으로부터 경멸하고 있다는 태도로 울부짖듯이 고향을 지르며 재떨이, 그릇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 버리는 것이다(인용자역)’ 34)

여기서 최건영은 최재서, 맑시즘 문예이론가는 주지주의 문예이론가로 하면 되고, 가라시마박사는 가라시마 츠요시(辛島驍), 츠다 지로는 츠다 다케시(津田剛)로 보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우선 일본제국주의의 ‘미코시(神輿), 관리, 무법자’³⁵⁾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관리든, 가라시마 혹은 츠다든, 그들은 우선 일본인이기 때문에 시혜의식을 가지고 지배민족의 우위성을 발휘하면서 당당히 ‘내선일체’든 ‘황민화’든 주장할 수가 있었다.

그에 비해 최재서는 식민지의 굴복한 지식인이었다. 식민지 지배하의 현실 속에서 자기모순, 갈등, 부조리에의 저항, 인격파탄 등 인간파괴가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최재서의 이러한 상처받은 양상은 다음 단계에서는 발광하여 이욕과 자살에 이르는 폐쇄회로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이 왔다.

이렇게 친일문학에 나타나는 ‘내선일체’의 논리 속에는 ‘역사의 환상’의 현실화와 그 현실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인에의 향상심리가 보인다. 그 속에는 진실로 일본제국주의의 우위성에 편승하려 했으나, 결코 그 우위성에는 오를 수 없는 식민지 한국의 친일파들의 비극성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34) 田中英光 ‘酔いどれ船’ 『田中英光全集』 2卷. 芳賀書店. 1945. 274~275頁.

35) 丸山眞男 ‘軍國支配者の精神形態’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88. 129頁.

그 속에는 일본인과 닮았으나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는 소위 ‘황민화’와 ‘내선 일체’의 차별과 억압 속에 투영된 친일문학자의 비극적 모습이 크로즈업되어져 어두운 시대를 더욱 어둡게 했던 것이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모범답안적인 시(詩)도 있었다.

원정(園丁)

김 종 한 (金 鐘 漢)

늪은 돌배나무에, 늪은 원정은
사과나무의 새가지를 접목했다.
잘 같은 칼을 놓고
으스스 추운 유리빛 하늘에 담배연기를 흘려 보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원정의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윽고, 철쭉이 웃음을 팔았다.
이윽고, 버드나무가 몸을 팔았다.
늪은 돌배나무에도, 변명처럼
두 송이 반의 사과꽃이 피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원정의 아내도, 처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실연했다.
그리고, 철쭉은 늪어 시들었다.
“내가, 죽을 무렵이면”
늪은 원정은 생각했다.
“이 가지에도 사과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잊혀질 무렵이면 ……………”

과연, 원정은 죽었다.
과연, 원정은 잊혀졌다.
늪은 돌배나무 가지에는 추억처럼
사과의 빨간 볼이 주렁주렁 빛났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원정의 아내도 지금은 죽었다.(인용자역)³⁶⁾

36) 金鍾漢 ‘園丁’ 『國民文學』 1942. 1月號. 58~59쪽.

여기에서 ‘늙은 돌배나무’는 한국, ‘사과나무의 새가지’는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 따라서 ‘접목’은 ‘내선일체’, ‘사과’는 ‘내선일체’의 결실, ‘철쭉’과 ‘벼드나무’는 반대론자, ‘아내’는 회의론자로 유추된다. 나아가서 ‘원정’은 ‘내선일체’ 실행의 선구자이고, ‘내선일체’의 이상(理想)은 먼 미래의 자손의 대(代)에 그 결실의 꽃이 핀다는 교묘한 ‘내선일체’ 예찬의 시인 것이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 이해받을 수 없는 ‘내선일체’론자의 비애와 장래에 대한 확신이 멋들어지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접목’이라는 말로 ‘내선일체’를 은유하면서 ‘사과나무의 새가지’(일본)의 ‘뿌리’가 ‘돌배나무’(한국)임을 명확히 하여 어쩔 수 없는 자기정체성(identity)을 내세워, 교묘하게 반항정신을 표현한 문학적 감각은 가히 예술적 경지라 할 것이다. 이 시를 쓴 김종한은 1944년 9월 31세로 요절했다.

4. 맺음말 - 친일문학이 다다른 곳

소위 친일문학으로서의 ‘신체제문학’은 식민지 지배권력이 문학자를 방관할 리가 없고 방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끝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자발성(自發性)의 문제이고,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타협의 지적 무기력의 문제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친일행위들이 그렇듯이 그것이 갖는 반민족적 성격의 문제이다.

소위 ‘신체제문학’의 중요한 제재의 하나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인 소위 ‘성전(聖戰)’ 참가의 문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또는 집단과 집단이 각각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그 국가, 민족 또는 집단은 같은 가치관과 목적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가, 민족, 집단을 걸고 대결하는 최종적 행위인 것이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한국 민족의 이러한 요소가 하나라도 내포되어 있었을까. 하물며 태평양전쟁에 한국의 민중이 얼마나 참여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당시의 한국은 식민지라는 시대상황이었고, 한국의 인적 물적 동원을 노리는 일본제국주의는 강제적으로 민중을 전쟁에 몰아 넣었으며, 친일문학자들이 외치고 있던 일본의 승리와는 반대로 민중은 일본의 패배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 실상이었다. 그리고 친일을 실천한 소위 ‘신체제’의 친일문학자들이 일본인의식 위에 서서 참여의식을 드러내며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야마토민족(大和民族)과의 동등한 지위’ 혹은 ‘아시아의 지도민족의 지위’는 획득되어졌던가.

이렇게 소위 ‘성전’에의 참여를 부르짖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에의 충실한 복

무와 굴복임은 물론, 한민족의 거대한 희생을 스스로 강요하는 행위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한민족이 어느새 아시아의 가해자 쪽에 가담하는 모순마저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 각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인 전범자들을 보라³⁷⁾).

따라서 친일문학의 다른 이름인 ‘신체제문학’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한국인의 소위 ‘성전’ 참여문제는 한국 민중은 물론 아시아의 민중에 대하여 동시에 전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산물인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위 ‘신체제문학’이라 불렀던 친일문학의 논리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식민지 지배하의 현실수용과 타협이 그것이다. 현실이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즉 태평양전쟁 수행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일전쟁까지는 소위 ‘대륙병참기지’로 불리다가 태평양전쟁 이후는 소위 ‘대동양병참기지’로 불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제국주의는 소위 ‘성전’의 확대에 따라 식민지 한국의 인적·물적 양면의 총동원체제가 긴급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에 있어서의 ‘신체제’가 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악랄한 검열하에서의 문학자의 동원도 그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식민지 지배 이념인 ‘황민화’와 ‘내선일체’의 수용이다. 친일문학 즉 ‘신체제문학’에서는 급변하는 ‘성전’의 전황을 반영하면서 ‘황민화’와 ‘내선일체’의 실천과 민중의 전쟁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의 창작이 중요시되었다. 말하자면 문학의 정치적 선전도구에의 전략인 것이고, 민족을 부정하는 동화정책을 수용했던 것이다.

식민지 한국의 친일문학 곧 ‘신체제문학’ 논의는 ‘총후문학(銃後文學)’ 혹은 ‘전쟁문학(戰爭文學)’으로 시작되어 ‘국민문학(國民文學)’과 ‘결전문학(決戰文學)’을 부르짖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 이념인 ‘황민화’와 ‘내선일체’의 실천이 중요시되었고, 귀결되는 모든 주제가 천편일률적으로 ‘황민화’와 ‘내선일체’로 모아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중국에는 일본어로 창작하여 일본문학으로의 귀속을 목표로 하는 문학이었다. 여기에서 한국문학은 멸망한다. 이 단계에서 친일문학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본문학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반민족적인 반역행위였던 것이다.

37)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49개소에서 한국인 148명이 BC급 전범자로 재판을 받았고, 이 중에서 2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内海愛子『朝鮮人BC級戰犯の記録』勁草書房 1983. はじめに 2頁)

【參考文獻】

柳宗鎬 ‘李孝石’ 『韓國의 人間像』 第五卷(文學者篇) 新丘文化社 1967. 515~516쪽.
崔載瑞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6頁.

內海愛子 『朝鮮人BC級戰犯の記録』 勁草書房 1983. はじめに 2頁.

內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亂』 勁草書房 1987. 35~36頁.

大濱徹也, 小澤郁郎 『帝國陸海軍事典』 同成社 1984. 7頁. 17頁.

田中英光 ‘酔いどれ船’ 『田中英光全集』 2卷. 芳賀書店. 1945. 274~275頁.

朝鮮總督府 『併合の由來と朝鮮の現状』 朝鮮印刷株式會社 1924. 1頁. 2頁.

朝鮮總督府 『新しき朝鮮』 朝鮮行政學會 1944. 25頁. 15~16頁.

朝鮮總督府 情報課 編 『新しき朝鮮』 行政學會 1944. 48~50頁.

丸山眞男 ‘軍國支配者の精神形態’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88. 129頁.

陸軍省 新聞班 『時局の重大性』 1937. 11. 18. 66頁

『國民文學』 1942. 1月號. 58~59쪽.

『國民文學』 1942. 3月號. 6~7쪽.

『國民文學』 1942. 5·6月合併號 44~45쪽. 208쪽.

『國民文學』 1942. 5·6月合併號. 195쪽.

『國民文學』 1942. 7月號. 26쪽.

『國民文學』 1942. 8月號. 12~13쪽.

『國民文學』 1942. 8月號. 17쪽. 16~17쪽.

『國民文學』 1943. 7月號. 33~34쪽.

『國民文學』 1943. 7月號. 46~48쪽.

『國民文學』 1943. 10月號. 33~34쪽.

『新時代』 1941. 1月號. 155쪽.

『新時代』 1941. 2月號. 266쪽.

『新時代』 1941. 3月號. 302~303쪽.

『新時代』 1941. 5月號. 304쪽.

『每日新報』 1940. 1. 5.

『每日新報』 1943. 9. 7.

『每日新報』 1943. 9. 22.

『每日新報』 1943. 11. 6.

『每日新報』 1945. 1. 18.

要旨

所謂戦争文学から決戦文学に至る「親日文学」である「新体制文学」の時局論議は、植民地支配権力が文学者を傍観する筈がないという事を勘案しても、当局の目を逸らす手段であるとか、権力の強制による屈服であるとかだけでは済ませない問題を未だに残している。

それは、彼らのその自発性の問題であり、植民地の現実に順応する現実妥協の知的無気力の問題である。そして、植民地時代の親日行為がそうであるように、それが持つ背民族的性格の問題である。

「親日文学」の重要な内容の一つが所謂「聖戦」参加の問題であった。周知の通り、戦争とは国家と国家あるいは集団と集団との戦いである。その国家または集団は、同じ価値観や目的、あるいはイデオロギーに支えられ、国家あるいは民族をかけて対決するのである。満州事変、日中戦争に於いて韓国民族にこのような要素が実在したのだろうか。また、太平洋戦争に韓国の民衆がどれ程の参与意識を持っていたのだろうか。当時の韓国は植民地という時代状況で、人的・物的資源の利用を狙う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強制的にかの戦争に巻き込まれて行ったのであるが、「親日文学」の文学者たちが叫んだ勝利とは裏腹に、韓国の民衆の動向は日本帝国主義の敗北を願っていたのが実状であった。

そして、いわゆる「親日文学」の文学者たちが日本人意識の上に立ち、参与意識を露にしたにもかかわらず、彼らが夢見た「大和民族との同等の地位」あるいは「アジアの指導民族」にはついに成り得なかったのである。

結局、これらの「聖戦」への参加を呼びかけるのは、日本帝国主義への忠実な服務と屈服を意味する事に過ぎないし、韓国民族の巨大な犠牲を強要する事に他ならないのは勿論、いつの間にか、アジアの加害者の方に加担する矛盾をはらんでいたのである。

したがって、いわゆる「新体制文学」の重要な主題の一つである韓国人の「聖戦」参加問題は、韓国の民衆とアジアの民衆に対して同時的に戦争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結果を招くしかない。

「親日文学」たる所謂「新体制文学」の論理は二つに要約できる。一つは、植民地支配下の現実受容と妥協がそれである。現実とは主に日本帝国主義の戦争遂行を意味する。韓国は、日中戦争までは所謂「大陸兵站基地」と呼ばれたが、太平洋戦争以後は所謂「大東亜兵站基地」と呼ばれるに至った。日本帝国主義は所謂「聖戦」の拡大につれて、植民地韓国人の人的、物的の両面にわたっての総動員体制が緊急課題となり、韓国に於いての所謂「新体制」が始まったのである。厳しい検閲の下、文学者の動員もその一環であった。

もう一つは、現実反映である。「親日文学」に於いては、急変する「聖戦」の戦況を反映しながら、「皇民化」と「内鮮一体」の実践と、民衆の戦争参与意識を鼓吹する作品の創作が重要視された。いわば、文学の政治的宣伝道具への転落であるし、この段階で「親日文学」はなくなって日本文学へ帰属す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親日文學、新体制文學、皇民化、内鮮一体、新体制、聖戰、
國民文學、戰爭文學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